

## 중국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 본격 착수

김동하(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지역통상학과 교수)

### □ 중국정부는 2012년에 전격적으로 2개 도시, 1개 권역에서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을 착수함

- 중국정부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저장성 원저우, 광둥성 주강삼각주, 푸젠성 취안저우 등 3개 지역에서 실행할 '금융종합개혁실험구' 관련 정책을 공포함
  - 동 정책의 법적근거는 각각 '저장성 원저우시 금융종합개혁실험구총체방안' (이후 '원저우 방안'으로 약칭), '광둥성 주강삼각주 금융개혁창신 종합실험구 총체방안' (이후 '주강 방안'으로 약칭), '푸젠성 취안저우시 금융서비스 실효경제종합개혁실험구 총체방안' (이후 '취안저우 방안'으로 약칭) 등임

### □ 이들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안되었으며 각 지역별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 방안, 실행세칙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음

- 또한 지역별로 각기 다른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차별성도 보유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동 정책이 중국정부가 미래 집중 육성하고자하는 3차산업 중 하나인 금융업을 포괄한다는 점과, 매우 세분화된 지역발전전략이라는 점임
  - 중앙정부(국무원, 인민은행)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중국 내 기타 지역에서는 아직 허용하지 않는 금융분야 개혁조치를 시범적으로 우선 허용하는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은 저장성 원저우(溫州)에서 시작됨

### □ '원저우 방안'이 출범한 배경은 2011년 말 민영기업이 밀집한 원저우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연쇄도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서 우선 찾을 수 있음

- 반면 '원저우 방안'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성격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원저우 모델'로 유명한 이 지역에서 1980년대부터 꾸준히 금융개혁을 실험해 온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종의 개혁정책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임
  - 2012년 3월에 '원저우 방안' 중 '총체방안'이 공포되었으며, 9개월 후인 동년 11월에는 '실시방안'이 마련되어 관련 정책이 이미 집행되고 있음
-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보면 '원저우 방안'은 현재 노동집약적 산업의 한계로 인해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린 원저우 지역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한계기업들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함의도 있음
  - 이러한 연유로 저장성 수도(항저우)도 아닌 경제규모 3위의 연해도시 원저우시에 가장 먼저 '금융개혁종합실험구' 정책이 시작된 것임
- 2013년 3월말 현재, '원저우 방안'에 의거하여, 민간금융 및 농촌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금융

기구가 출범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가 집행되고 있음

### □ 두 번째 '금융개혁종합실험구'가 들어선 곳은 광둥성 9개 도시로 이루어진 주강삼각주임

-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지역은 광둥성 내 광저우, 포산, 선전, 둥관, 후이저우, 자오칭, 주하이, 중산, 장먼 등 9개 지급시(地級)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강삼각주 및 환발해 지역과 함께 중국의 3대 경제발전 거점임
- 주강삼각주 지역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1개 지급시로 이루어진 광둥성 전체 GRDP의 82.1%에 달함
  - '주강 방안'은 2012년 6월 27일자로 '총체방안'만 공포가 되었으며, 실행 방안을 담은 '실시방안'은 아직 공포가 안된 상태임
- '주강 방안'이 출범한 배경은 5년전에 중앙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포한 '주강삼각주지구 개발발전규획강요(2008-2020)'에 기인함
  - 동 '강요'는 2020년까지 주강삼각주지구 1인당 GDP를 13.5만위안(2008년 기준환율로 2만달러)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전전략을 담고 있는 산업별·지역별 마스터 플랜임
  - 동 '강요'에서 1차로 언급된 금융분야 개혁방안을 다시 정교화하여 도시별로 어떤 금융분야에서 어떠한 발전전략을 채택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음
  - 특히 2004년에 홍콩과 체결한 실질적인 FTA인 CEPA(경제협력동반자협정)가 금융분야에서의 중국·홍콩간 협력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앞으로 공포될 '주강 방안'의 시행세칙은 이와 관련된 개혁적이고 실험적인 조치들을 담을 가능성이 큼

### □ 마지막으로 2012년 12월 21일자로 푸젠성 경제규모 1위 도시인 취안저우시에 '금융서비스종합개혁실험구'를 설치하기로 한 '취안저우 방안'이 공포됨

- 취안저우(泉州)는 푸젠성 수도인 푸저우보다 경제규모가 큰 경제 중심도시인데, 2011년말 기준 취안저우 GRDP는 4270억 위안으로 푸저우시(3736억 위안)보다 14.2% 크며, 상주인구는 821만명으로 푸저우시(720만명)보다 14% 많고, 푸젠성 총 GRDP의 24.3%를 점유하고 있음
  - 동 '방안' 역시 '총체방안'만 공포되었고, 실시방안은 아직 마련이 안된 상태임
- 취안저우 역시 원저우 못지 않게 민영경제가 발달해 있어서, 동 방안은 민간분야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2010년에 중국은 실질적인 FTA인 ECEA(경제협력기본협정)를 타이완과 체결하였으며,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맞물려 중국과 타이완과의 금융분야 통합(은행지점 상호개설 및 위안화 투자허용 등)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공포될 '취안저우 방안'의 실시방안 역시 타이완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실험적인 특혜조치를 담을 것으로 전망됨

<표> 중국의 3대 금융개혁종합실험구 비교 (2011년 기준)

	원저우시 (저장성)	주강삼각주 (광둥성)	취안저우시 (푸젠성)
정책 공포일시	2012.3.28(총체) 2012.11.23 (실시방안)	2012.6.27 (총체방안)	2012.12.21 (총체방안)
정책 중점 추진 방안	민간금융·민간기업, 3농 위한 금융서비스	위안화 국제화, 홍콩· 마카오와 협력	대만과 금융협력, 민간기업금융서비스
발전 배경	금융개혁 인프라와 민간위주 경제구조	홍콩과 체결된 CEPA	타이완과 체결된 ECFA
장애 요인	현존하는 민간대출 위기 극복여부	노동집약형 산업 업 그레이드 성공여부	빈약한 금융기반(자 산, 규모, 인프라)
행정단위	단일 시 (성내 경제3위)	9개 시	단일 시 (성내 경제1위)
GRDP (억 위안)	3350 (10.4%)	43720 (82.1%)	4270.89 (24.3%)
상주인구 (만 명)	914 (16.7%)	5616 (53.8%)	821 (22%)
1인당 GDP (위안, US\$)	42278 (6546\$)	77637 (12020\$)	52245 (8089\$)
도시화율(%)	66.3	83	59.3
위안화 예금/대출 (억 위안)	7271.27/ 6195.11	*91590/ *58615	3779.66/ 3020.97
개인예금액 (억 위안)	3342.26	31725.18	2049.66
소액대출회사(개)	35	*163	23
촌진은행(개)	6	*24	1

주: 괄호 안 수치는 省에서의 비중을 나타내며, \*표기 수치는 광둥성 전체 수치임.

#### □ ‘금융종합개혁실험구’ 관련 정책과 그 배경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평가를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동 정책은 지역별 맞춤형으로 공포되었고, 제정시 일부 ‘방안’은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집행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 전체 금융개혁을 촉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임
  - 중국 금융개혁의 3대 목표로 자본항목의 자유화, 위안화의 국제화, 금리 및 환율 자유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금융종합개혁실험구’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원저우의 개인해외투자허용, 금리자유화 등)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중국전체의 금융개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둘째, 동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하향식(top down) 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의 상향식(bottom up) 제도화가 구축될 전망이다
  - 소액대출회사의 촌진은행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소액대출회사 대주주였던 민간 기업들이 경영권을 유지한 채 촌진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

되어야 함

- ‘금융종합개혁실험구’ 방안에서 동 ‘전환’이 중요 목표로 제시된 바, 1980년대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해당지역에서만 개혁조치를 허용했듯이, 지방 법규로 동 ‘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임
- 셋째, 외형상 2개의 도시와 1개의 권역에서 제한적인 실험으로 보일 지라도, 동 정책은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정책적 실험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임
  - 동 정책은 저장성 원저우를 제외하면 1980년대 개혁개방이 먼저 시작되었던 광둥성(주강삼각주), 푸젠성(취안저우) 같은 동남연해 지역에서 착수되었음
  - 따라서 기존 개혁개방 정책의 틀, 즉 ‘엄격히 제한된 영역 내에서 최대한 자율성 부여’라는 방식을 따를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1980년대와 지금의 중국경제가 다른 점은 동 정책이 다루는 ‘금융’은 이전의 경제특구처럼 제한된 영역 내에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법으로 중국 주식시장을 넘나드는 ‘핫머니(투기성 국제단기자금)’에서 보듯이 통제하기도 쉽지 않음

#### □ 우리 기업들은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 전개와 맞물려 다음과 같은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중국 농촌금융시장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에 이미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도 ‘금융종합개혁실험구’가 설치된 3개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농촌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둘째, 중국 개인투자자의 자본유치를 준비해야 할 것임
  - ‘원저우 방안’의 제4항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있음
  - 2011년 1월에 원저우시 정부가 추진하려던 ‘원저우시 개인해외직접투자시험방안’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실시가 유보된 상태이나, ‘금융종합개혁실험구’의 특성상 조만간 관련규정이 재정비되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셋째, 중국에 기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 자본항목 자유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이들 ‘실험구’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진정한 의미의 위안화 국제화 혹은 기축통화로의 부상은 자본항목 자유화, 자유로운 국제금융시장 조성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주강 방안’은 이러한 선결조치가 중국 내에서 가장 먼저 형친지구와 치옌하이지구에서 시작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 이들 지역 내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외환의 보유·유통과 투자가 점차 허용될 가능성이 커 보임
  - 따라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중 상장, 위안화 채권 발행 등을 통한 파인낸싱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정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新華網, 中國網, 人民網 등)